

승리신문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라

우명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격암유록에 명시되어 있다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는 것이 수도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소 울음소리 또는 우명성(牛鳴聲)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무수한 관련 자료들이 뜬다.

그 중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증산 선생 계열의 종교단체에서 제공한 자료들이다. 예컨대 증산도, 대순진리회, 증산교 등의 종교단체는 수행의 수단으로 염송하는 태을주(太乙呪)가 바로 소 울음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라엘리안 무브먼트, 소위 외계인 엘로힘이라는 자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들도 소울음소리를 말하면서 자신들의 발성명상 중에 ‘아-우-옴’이라는 소리를 내는 명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 울음소리라고 하고 있다.

태을주는 “흠치흠치(咄咄咄咄)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흠리치야도래(咄哩咄哪都來)흠니함니사바하(咄哩喊哩娑婆訶)” 23자로 이루어진 주문으로 흠치흠치는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한 울님을 부르는 소리로서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道典 7:58)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태을주를 외우면 심령(心靈)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神道)를 통하여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道典 11:61)이라고 그들은 설명한다. 그러면서 천전에 우주의 절대자가 발하는 우주의 창조음이 ‘옴(唵)’이었다면,



후천에 우주의 절대자가 발하는 우주의 성숙과 결실의 진동음은 ‘흠’이라고 하면서 ‘흠치’가 소 울음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억지로 끌어다 맞춘 것으로 어색하기 짝이 없다. 흠치의 흠(咄)은 소 울음 흠이고 치(咄)는 입 크게 벌릴 치이다. 즉 소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소는 분명히 ‘옴메(옴마)’하고 울지 ‘흠치’하고 울지 않는다. 따라서 흠치는 소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태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흠치가 소 울음소리라고 한다면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육도삼략의 63궁으로 오신 강증산 선생이 나중에 천지개벽을 완수할 81궁으로 오시는 조희성님을 천지의 부모이신 구세주 하나님이요 정도령이며 미륵불이라는 것을 증산 선생 사후 자기를 따르는 제자

들에게 암시해 놓은 단어가 바로 ‘흠치’라고 해석해야 한다. 조희성님은 ‘구세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의 엄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강증산 선생의 말처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한울님을 부르는 소리’인 흠치는 ‘엄마라는 소 울음소리이다. 흠치는 ‘엄마’라는 단어의 의태어인 것이지 소 울음소리가 아니므로 태을주를 외우는 곳이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서로 저마다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은 자신들이 맞는 곳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격암유록의 관련구절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증산 계열의 종교나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격암유록을 전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끌어 꺾어맞추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千鷄之中有一鳳(천계지중유일봉)에 어느새(성)이 眞聖(진성)이고 眞聖一人

(진성일인)알라거든 牛聲入中(우성입중)차자들소” - 『송가전』을 해설하면 “천 마리의 닭 가운데 봉이 한 마리 있으니, 어느 분이 거룩한 성인이며 진실한 성인인가? 참된 성인 한 분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진짜 성인이 계시다는 뜻이고, “牛吟滿地(우음만지) 善人多生之地(선인다생지) 見不牛而牛聲出處(견불우이우성출처)” - 『은비가』를 해설하면 “소 울음소리 총만 한 곳이 많은 선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소는 보이지 않고 소 울음소리만 나는 곳이니.” 소 울음소리가 총만한 곳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농공가와 격암가사에는 분명히 소 울음소리의 존재를 ‘엄마(唵嘛)’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옴’이나 ‘아옴’이 아니라 분명히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라야 소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 울음소리를 엄마라고 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도 증명이 된다. 즉 전도관 교인들은 생조지략에 “面面村村牛鳴聲(면면촌촌우명성)”이라는 구절대로 박장로님을 실제로 ‘엄마’라고 불렀다. 조희성님도 ‘엄마라고 불리었다. 가사총론에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가운데 우명성이 남자한데 감로가 내려 심령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니 격암유록은 묵은 박테선 장로님과 금운 조희성 구세주님을 마지막 천지공사의 주인공으로 증거한 예언사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놀라운 천서(天書)임이 틀림없다.*

이사야서 41장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동방의 의인

격암유록 새41장, 인생추수의 주인공 조(曹) 씨를 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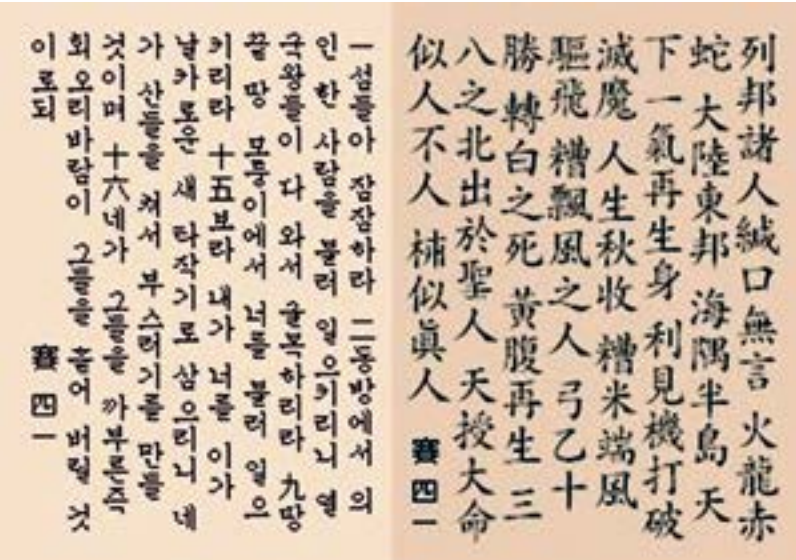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대장(大藏)이란 이사삼점(.:伊字三點, 삼신불=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여래의 비밀을 크게 감췄다는 의미가 있듯이, 성경 상에 인봉된 말씀도 6천년에 걸쳐 에덴동산을 회복할 『동방의 의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조선 선조 때에 천문학 교수로 재직한 남사고 선생은 예언서 격암유록의 승운론과 말운론에 ‘마귀한테 예속된 무지자(無知者)가 하나님의 비밀 문구를 알게 되면, 나(我)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미워하는 반대생물로 나(我, 마귀)를 이긴 진인(眞人)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예언서에는 천기(天機)가 감추어진 문장으로 머리를 숨기고

피리를 감추어 놓아 아무나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승운론: 易理(역리)속의 秘藏文句(비장문구) 不勞自得(불로자득) 彼此之間(파차지간) 無知者(무지자)가 알게 되면 勝己厭之(승기염지) 此世上(자세상)에 眞人出世(진인출세) 못한다네. / 말운론: 自古豫言(자고예언) 秘藏之文(비장지문) 隱頭藏尾(은두장미) 不覺書(불각사)]

서양 최고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1503~1566)에 비견되는 동시대의 인물 남사고 선생(1509~1571)은 그의 비결서 <격암유록 새41장>을 구약성경의 ‘이사야 41장 (賽 四一)’과 똑같이 책명을 표절한 것처럼 명명하였고 기록된 예언 내용 또한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문으로 번역한 것처럼 거의 일치한다(분란 사전 참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격암 남사고 선생이 성경(聖經)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과 일치된 예언서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고백하였듯이 신인(神人)으로부터 비결서를 전수받았기 때문이다.

[참조: 한국에 성경이 최초로 전래된 때는 불교 200년 남짓하다. 천주교는 다산 정약용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한 평택 이충헌 현감(縣監; 군수)이 연경(燕京; 북경)에서



성경 이사야 41장

격암유록 새41장

1784년 3월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귀국한 것이 최초이다. 기독교는 1816년 9월 두 척의 영국 함선이 충남 서천 마량진에 닿을 내리고 정박할 때에 관청의 명을 받고 달려온 첨사 조대복에게 함장이 성경책을 전달한 것이 최초이다.]

“왜, 하나님께서 격암 남사고에게 이사야서 41장의 예언을 그대로 전수하셨는가?” 이러한 물음은 진짜 구세주를 판별하는 데에 단초가 된다. 왜냐하면 성경 이사야서 41장 2절의 ‘동방의 의인’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의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역사학자나 신학자들조차도 명확한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격암유록 새41장 ‘人生秋收(인생추수) 糟米端風驅飛(조미단풍구비) 糟飄風之人(조표풍지인) 弓乙十勝(궁을십승)’의 일부 구절을 풀면, 지게미 조(槽)자의 옆에 붙어있는 쌀 미(米)를 바람에 날려 보내면 무리 조(曹)만 남는데 그 조씨 사람이 십승(十勝, 승리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1장 8절에 『동방의 의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이스라엘(야람) 출신의 하나님 종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한국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증거

를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고학적인 유물로 평양 근교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왓장에 각인된 고대 히브리어(BC 1100년 이스라엘 문자)를 들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각 기왓장마다 「도착했다」고 히브리어로 써여 있거나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에덴동산이 회복된다」라고 히브리어가 써여 있음을 서울대 종교학과 신사훈 박사가 해독한 바 있다.

한민족(단지파)은 BC 1248년경에 고대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 남쪽 기슭 ‘단(라이스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BC 1100~1000년경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건립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BC 700년경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들어 쓴 놀라운 배경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대 전에 예비하신 금수강산 한반도에 단지파가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성공하자,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삼사백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땅 팔 땅 모퉁이의 나라에서 동방의 인을 불러일으키라’라고 예언하신 점이다. 게다가 한국의 반대편에 있는 서쪽 멀리 페르시아 나라에 고레스를 등장시켜 이사야서 41장에 예언된 주인공인 것처럼 꾸민 것도 마찬가지로 구세주를 배출할 단지와 민족을 마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하나님 전략이었다.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등장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적중한 의미는 말법시대에 오실 구세주의 역할을 그림자 격으로 보여준 것이다. 대륙동방 해우반도(大陸東邦 海隅半島)에서 출현한 『동방의 의인』께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인간 양심을 해방시키고 계시니, 열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구원을 얻어야 하겠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

“웃으면 영생(永生)의 복(福)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늘 웃으라고 하는 것은 웃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므로 웃으면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 몸에서 기쁨의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까닭입니다. 또 웃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피가 날로날로 하나님의 피로 변해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해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고,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으면 바로 엔돌핀이 방출돼서 옆 사람도 전염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는다는 건 참 좋은 거

다시 한번 웃어봐요! 그렇게 웃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꽃처럼 아름다워요. 하나님이나 웃는 거지 마귀는 항상 짜증을 내고, 항상 눈물을 흘리고, 마귀는 항상

지요?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사세요! 세상 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죠. 이 말은 돈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에요.*

이기는 삶

불만 고객의 엄청난 영향력

한 조사기관이 불만을 가진 고객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1. 무례하거나 불친절함을 경험한 고객의 96%는 그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 2.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느낀 고객의 90%는 다시는 그곳을 찾거나 그곳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3. 불만 스런 경험을 가진 고객은 적어도 9명의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중 13%는 20명 이상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4.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하여 각 업체마다 평균 26명 불만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6명은 아주 심각한 수준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5. 불만을 가진 고객 중에 업체를 상대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고객은 4%에 불과하다. 고객 1명이 불만을 이야기했을 경우, 사실은 그와 똑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24명 더 있는 셈이다. 그들은 업체를 상대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들의 주변 사람들, 즉 업계의 잠재고객이나 기존고객을 상대로 불만을 이야기한다. 6. 불만을 이야기하고 거래를 중단한 고객 중 70%가 불만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경우 다시 거래를 재개한다. 불만 사항이 신속히 해결되었을 경우 거래를 재개하는 고객의 비율은 95%로 증가한다.

7. 거래를 중단한 고객의 68%는 업체의 무관심에 불만을 품는 경우다. 고객의 시각에 부정적으로 비춰진 한 가지 일을 보상하려면 열두 가지의 긍정적인 일을 시행해야 한다. 위의 결과를 통해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서도 불만을 느끼지만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판매 접점에서

서 불쾌한 경험을 한 고객의 96%가 거래를 중단한다는 점은 사실상 기업의 존폐가 판매 접점에서의 서비스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대부분 경영상의 효율 문제나 고객의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서비스는 옅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를 “웃으면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지 그 자체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매 접점에서의 서비스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며, 기업의 경쟁력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고객들이 불만을 느꼈을 때, 적어도 9명에게 말한다는 사실은 기업에게 있어 접점에서의 고객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객들 중 4%만이 불만을 표현한다는 점 역시 기업 입장에서 매우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는 불만을 표시 하지 않는 96%는 쉽게 알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불만을 가진 고객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고객을 만나는 접점에서 작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설령 실수를 하였더라도 바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나의 작은 언행이 우리나라는 물론 내가 속한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누구를 만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응대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마귀 옥(獄)을 파하고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석방되어 나오는 것을 가리키어 <부활함을 입는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같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승리자에게는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